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2~2/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불교사회복지(프라즈냐총서60)불교사회복지사상과 실천의 현대적모색	명안	운주사
2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스님	효림	7	한원자속의 우주(과학과 불교)	달라이라마/삼묵 외	하늘북
3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8	육조단경	청화 역주	광륜출판사
4	불멸(1)영원한 지금의 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9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5	붓다의 향훈을 따라서: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가이드북	대연스님 지음	해조음	10	치유하는 유식읽기(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유식30송)	서광스님 강의	공간

책세상

‘철학자 원효’로 보는 불교철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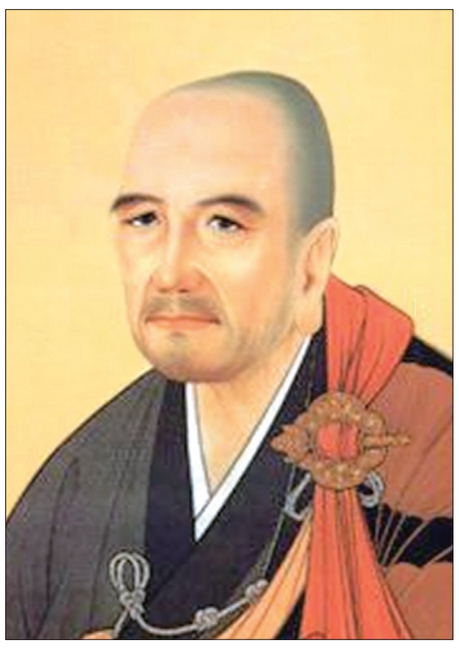


분황원효 불교사상사

고영섭 저
운주사 / 5만원

철학적 전환과 사상적 성숙과정 고찰
“아마라식 수용, 구역 섭론학 맥락”
동아시아 · 한국불교 지위 · 위상을 구명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원효 스님 진영.

원효는 한국불교사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조명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가 우리 불교사에 남긴 업적과 일화들은 한국 불교를 지탱하는 뿌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일심’과 ‘화쟁’으로 압축할 수 있는 그의 사상은 한국 불교를 넘어선 것으로, 그 가치에 대한 조명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책 〈분황원효불교사상사〉는 원효의 사상적 지형을 기반으로 하여, 구심으로서 원효와 원심으로서 동아시아 불교사상가 및 한국사상가를 조명한다. 원효를 동아시아 불교사상사의 구심에 두고 동아시아 사상가와 한국 사상가를 원심에 두어 대비함으로써 동아시아불교와 한국불교의 지위와 위상을 구명한다.

책은 전체 4부 14장으로 되어있다. 제1부는 ‘분황 원효와 불교사상’, 제2부는 ‘분황 원효와 동아시아 불교사상’, 제3부는 ‘분황 원효와 고려 · 조선 불교사상’, 제4부는 ‘분황 원효와 대한 불교사상’이란 주제를 다룬다.

△제1장 ‘동아시아 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에서는, 아뢰야식으로서 일심, 기신의 적멸·여래장으로서 일심, 화엄의 진심으로서 일심, 선법의 본법으로서 일심 이해를 통해 원효의 철학적 전환 과정과 사상적 성숙 과정을 고찰한다.

△제2장 ‘한국불교의 전통과 원효 불학의 고유성’에서는, 원효는 ‘다양한 주장’에 대한 해명(이해)의 과정을 거쳐 다시 ‘경문의 회석(會釋)’에 대한 융화 회통의 과정으로 나아갔음을 밝힌다.

△제3장 ‘분황 원효와 진제 삼장의 섭론학 이해’에서는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에서 본각의 결정성이자 법신불의 입장에서 제시한 아마라식을 수용하고 있는 것은 구역 유식인 섭론학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제4장 ‘분황 원효와 자은 현장의 인명학 이해’에서는, 원효는 〈판비량론〉에서 대승 불설에 대한 승군과 현장의 교증(教證)을 비판하고 자신이 고안한 이증(理證)의 논증식을 제시하였음을 살펴본다.

△제5장 ‘분황 원효와 문아 원측의 유식학 이해’에서는, 원측과 원효는 불설(佛說)의 핵심인 중도(中道)의 다른 표현인 일승(一乘)과 일심(一心)의 관점 아래 회석(會釋)하고 화회했다고 본다.

△제6장의 ‘분황 원효와 현수 법장의 기신학 이해’에서는, 원효는 적멸로서 일심과 여래장으로서 일심을 아우른 ‘본법으로서 일심’을 시설함으로써 완성된 인간상인 붓다상을 제시했다고 본다.

△제7장 ‘분황 원효와 인각 일연의 화엄학과 선학 이해’에서는, 원효와 일연의 화엄학과 선학 이해를 통해 두 사람의 살림살이와 사고방식을 구명했다.

△제8장 ‘분황 원효와 경허 성우의 구도 정신’에서는, 원효와 경허의 구도 정신은 부처와 중생, 홍법(弘法)과 화생(化生), 청산과 세속, 열반과 생사가 둘이 없는 무이(無二)의 중도(中道) 세계로 표출되었으며 그것은 요익중생과 이류중행으로 드러났다.

△제9장 ‘분황 원효와 만해 봉완의 깨침과 나눔’에서는, 이들은 ‘세간적 삶’을 벗어나 ‘출세간의 삶’에 들어서 깨침과 깨달음을 얻은 이후 다시 ‘출출세간의 삶’, 즉 ‘입세간의 삶’을 통해 일심법과 유심법, 화회론과 혁신론, 무애행과 심우행을 중심으로 철학적 삶과 종교적 삶의 소통을 모색했으며, 그들의 일심이문(진여·생멸)과 유심이문(일공·만유)의 철학적 구조를 종교적 실천으로 연결시켰다고 보았다.

△제10장의 ‘춘원 이광수의 분황 원효 인식’에서는, ‘신라의 발견’의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엮은이와 그의 의견에 동참한 이들의 자기 정체성의 부정과 자기 역사의 타자화로 일관된 논구들은 모두 일제가 만들어낸 담론의 재승인이라고 보았다.

△제11장 ‘분황 원효의 중도일심과 퇴옹 성철의 중도무심’에서는, 원효의 ‘중도일심’과 성철의 ‘중도무심’ 개념의 연속과 불연속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12장 ‘분황 원효의 일심과 묘공 대행의 한마음’에서는, 원효의 일심학이 일심지원과 일심, 일(각)미와 일심, 본각과 진여 등의 구도로 이루어지듯이 대행선의 가풍도 한마음 주인공과 한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원상으로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제13장 ‘분황 원효의 염불관과 무주 청화의 염불선’에서는, 원효가 〈아미타경소〉와 〈무량수경종요〉 등에서 제시한 타력에 의한 왕생인(往生因)과 청화의 일상(一相)삼매와 일행(一行)삼매의 실천을 통한 ‘순선안심(純禪安心)’을 비교하고 있다.

△제14장 ‘분황 원효 연구 논저 목록’에서는 지난 100여 년 동안의 원효 저술의 편서 및 역서, 원효 관련 단행본, 논문, 박사논문, 석사논문 순으로 정리했다. 이들 논저 목록을 일별해 보면 분황 원효에 대한 연구사 자체가 곧 새로운 불교철학사를 써 가는 과정임을 체감할 수 있다.

〈서장〉 다시 읽기



禪, 이렇고 이렇다

수행경전연구회 편저
학이사 / 1만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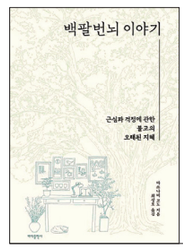
〈서장〉은 간화선의 창시자 대혜 종고 스님이 송나라 사대부인 참선 수행자들과 참선 수행에 대해 주고받은 편지글을 엮은 책이다. 선에 입문하는 초보자에서부터 법거량을 담당하는 방장에 이르기까지 각종 불교 경전과 자신의 체험, 부처님의 말씀, 선사들의 죽비 소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면서, 말 없는 말로 간화선의 요체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스님의 제자들에 의해 편집된 〈서장〉은 그동안 많은 수행자들에게 화두 참선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책 〈禪, 이렇고 이렇다〉는 수행경전연구회가 〈서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한 책이다. 편지 내용을 소주제별로 재구성해 선가는 물론 일반 수행자들이 간화선의 진수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준다. 책을 재구성하는 데는 원본과 여러 저서와 번역서 등을 참고했다.

책은 선공부의 시작[信]·선공의 이해[解]·선공부의 실천[行]·선공부와 깨달음[證]이라는 큰 틀을 기반으로 서장의 내용을 재구성했다. 그다음 각 소주제는 들어가는 말과 서장의 내용을 추출한 서장 본문 내용, 보충 해설인 다시 보기의 3단계로 되어 있다. 각주에는 서장 원본의 편지 제목과 차례를 밝혔다.

수행경전연구회는 위덕대에서 불교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모임이다.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 밀교 등의 수행의 이론과 방법을 접하면서 일관성 있는 불교 수행의 이론적 근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행 위주의 경론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으며, 〈독송하는 염처경〉 〈수행의 길을 밝히는 수행도지경〉을 출간했다. 박재완 기자

괴롭지 않은 사람 없다 부처님 말씀에 답이



백팔번뇌 이야기

마쓰나미 고도 지음
최성호 옮김
바다출판사 / 1만7천8백원

“저는 지금 너무나 괴롭습니다. 지금까지 괴로움을 털어놓지 못하고 가만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는데, 더는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 좋은 일만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부처님은 그런 인간의 힘겨움을 ‘백팔번뇌’로 정리했다.

현대 인류는 쉼 없는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삶의 외향은 풍요로워졌지만, 그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 그 만큼 정신과 마음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고, 그 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워 괴로운 일들도 많아졌다.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일어나는 번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찾지 못하고 홀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다.

책 〈백팔번뇌 이야기〉는 우리 주위에 참 많은, 홀로 괴로워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번뇌극복 참고서다.

이 책에는 석가모니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인생의 교훈을 담은 초기 경전 〈사십이장경〉과 〈법구경〉 〈경집〉 그리고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등이 지켜야 할 불교의 예법을 담은 〈육방예경〉 등 70여 권의 불경에서 선별한 108개의 구절이 수록되어 있다. 이 구절들은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죽음과 노화, 불안과 좌절 등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불행이라 여기는 이것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바로 알면 충분히 다스려 평안한 마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와 스스로 삶의 기쁨을 만드는 방법, 타인과 나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벗어나는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박재완 기자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초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